백문불여일견의 흑암재앙

(출10:21~29)

2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22.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삼 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23.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오늘 아홉 번째 재앙으로 흑암 재앙이 임하는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백문불여일견의 흑암재앙>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백문불여일견의 흑암재앙'
우리가 보통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만 이 말의 원전은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소위 말하는 베스트 프렌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소식이 끊어졌는데 아버지끼리 친구였고, 앞뒷집에 살았습니다. 그 친구의 외삼촌이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교수님이셨습니다.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접한 것이 1960년대 말에 그 친구를 통해서입니다. 그 친구도 미국을 가본 적이 없고 외삼촌이 가끔 해주시는 이야기와 외삼촌이 보내주시는 물건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저한테 이야기해 주면, 저는 미국을 그 친구를 통하여 귀로 보는 것이고, 미국은 처음 귀로 봤습니다. 그러다가 독일 유학 중에 짬을 내서 미국에 들리기도 했고, 그 뒤로 미국에 일정기간 살기도 해보았습니다만, 그야말로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내 눈으로 직접 보는 미국이 더 실감나고 정확하게 느끼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이 백문불여일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에 발전적인 변화를 주는데, 백문불여일견이 백견불여일행으로 백번 보는 것보다 한번 행하는 것이 낫다고 하고, 거기서 더 발전하면 백행불여일각으로 백번 행하느니 한 번의 올바른 깨달음을 얻는 것이 낫다는 것이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백각불여일도로 참된 도를 한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백번의 깨달음보다 낫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기까지가 백문불여일견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지혜로운 경험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변화인데, 롬10: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

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하십니다.
'들음'은 백문불여일견에서의 문(聞)이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도(道)입니다. 즉, 도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들음에서 나온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백문불여일견에서 완전히 360도 돌아서 어떻게까지 정착을 하느냐면 백견불여일문이 되어버리는데, 백번 보는 것보다 돌고 돌아서 한번 듣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도에 대해서도 들음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백문불여일견이 몇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정착하는 곳은 백견불여일문인데, 백번 보는 것보다 제대로 된 말씀을 한번 듣는 것이 낫다는 것인데, 사실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재앙인 것은 진짜 못보고 있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의 문제가 심각하게 마음에 걸려있다면, 문제가 터지고 있는 사업 현장에 나가서 내가 백번을 보는 것과, 그 사업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번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말 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백번을 그 문제를 살펴보고 판단하고 대처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주시는 것이 낫습니다.
백문불여일견을 발전적으로 변화시켰던 그 말들을 종합해보면 백견불여일행, 백행불여일각인데 백번 내가 행하는 것이 낫습니까? 하나님께 한번 듣는 것이 낫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백번 나의 지혜로 깨닫는 것이 낫습니까? 하나님께 한번 듣는 것이 낫습니까? 하나님께 한번 듣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집사님이 화장품 사업을 하시는데, 몽고의 화장품사업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기 위해서 몽고를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분이시기 때문에 직접 몽고에 가서 백번 시장조사를 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조 희팔의 사기 사건으로 3만 명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다 자기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좋겠다고 믿어서 투자했는데 다 눈뜬장님들입니다. 보고 또 보고 내가 본 대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투자했는데 다 날렸습니다. 3만 명이라는 사람에게 4조원을 사기 치고 조 희팔 측에서는 죽었다고 하지만 지금 숨어서 아직도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참고할 것은 하나님도 조 희팔을 보고, 나도 조 희팔을 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보시는 조희팔의 모습을 못 듣는 것이 이게 바로 흑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확신해서 돈을 투자하고 사기를 당하는데, 백문불여일견이라는 이 말은 영적으로 보자면 흑암재앙 자체를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는 것, 남의 말을 백번 듣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한번 보는 것이 낫다는 이 말이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 자체가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흑암재앙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더듬을만한 캄캄한 흑암이 삼 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라고 합니다.
색도 여러 번 칠하고, 니스 같은 투명한 것도 반복해서 칠하다 보면 빛깔이 짙어지는 것처럼 이 흑암도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겹겹이 흑암이 반복해서 덧칠되다시피 하면 손으로 만지면 만져질 것 같이 두터운 흑암이 되고 그런 것이 애굽에 덮여버렸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으로 등장한 흑암 재앙이 무서운 이유는, 이제까지의 여덟 가지의 재앙이 영적 재앙으로 이미 그런 재앙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바로의 기세를 꺾으시며 동시에 그런 기적을 통해서 선민에게 당신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시며 가르쳐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이러한 재앙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인데 사람들은 못 보고 있으므로 이것을 보고 재앙을 출애굽과 동시에 출재앙을 하라는 것인데, 이 재앙들이 재앙으로서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이유는, 이제까지의 여덟 가지의 재앙을 재앙답게 해주는 재앙이 흑암 재앙이고, 내가 재앙 속에 있으면서 재앙인줄을 모르기 때문에 재앙의 재앙다움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재앙을 재앙인 줄 알면 재앙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재앙을 극복할 수 있으니 십자가를 찾게 될 것인데, 재앙이 재앙인줄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버리고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흑암 재앙이라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요?
흑암 재앙이 실감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도 다 눈으로 보며 살고, 우리 눈이 떠서 사물을 분별하고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을 구분해내며 살고 있기 때문에, 흑암 재앙이 실감되기가 참 어려운데 이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원점으로 돌아가 봅니다.
창3: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하와와 뱀의 상봉장면이 나오고, 5절에서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라고 합니다.
뱀의 유혹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같이 되어 에덴에서 쫓겨나고 재앙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전제는 이미 모든 인간은 아담의 타락이후에 흑암의 재앙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차원의 흑암을 보내심으로 영적 차원의 흑암 재앙을 선민들에게 가르쳐주시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상합니다.
아담의 타락 때문에 우리가 흑암 재앙 가운데 거하며 살고 있는데, 타락의 장면을 살펴보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라고 하는 것은, 눈은 밝아졌는데 결국은 흑암 가운데 거한다는 서로 상치되는 내용입니다.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광명의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광명의 세상으

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흑암의 재앙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에덴에서 살았던 모습을 그려보면 흑암 재앙의 윤곽이 들어납니다.
아담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에덴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꽃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꽃도 예쁜 꽃도 있고 못생긴 꽃도 있습니다. 호박꽃이 못 생겼다고는 못해도 장미나 백합보다는 덜 예쁘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박한 아름다움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담의 삶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판단하지 않는데, 그것이 아름답다고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눈으로는 백합화를 보고 있지만 마음의 눈으로는 하나님만을 향해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에 대해 판단을 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야 취하거나 뿌리칠 수 있는데, 백합화같이 좋은 일이라거나 호박꽃같이 덜 좋은 일이라고 선악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만을 향하게 되면서 백합화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화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라고 가르쳐 주실 때에야 비로소 진정으로 아담은 백합화를 보게 됩니다.
즉, 아담은 타락 전에는 귀로 보던 사람으로, 바다를 본다면 바다가 시원하고 좋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눈으로는 바다를 보면서도 마음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다가 광활하고 탁 트여서 시원하다는 말씀을 들려주시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바다를 느끼는데 귀로 바다를 보는 것입니다.
“여인의 향기”라는 영화에서 알 파치노가 남우주연상을 받게 되는데, 시각장애인의 연기를 시각장애인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시각장애인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눈앞에서 사물이 움직여도 눈동자가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되고, 사람과 마주대하며 이야기를 하지만 그 눈은 먼 산을 바라보는 것 같은 초점을 가져야합니다. 눈뜬장님이라는 말처럼 타락 전에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아담의 모습이 그랬고, 눈뜬장님이 살아가는 방법은 귀로 보는 것인데, 사탄의 말을 듣고 자기가 직접 보면서 마음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판단한다.’는 것은 귀로 보지 않고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본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흑암에 빠져 들어가고, 귀로 보는 기능이 끊어집니다.

솔로몬의 흑암 탈출하는 방법이 왕상3장에 나오는데 일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오셔서 물으실 때에 솔로몬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니까”라고 합니다.
자기의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에 마음이 가세한다면 마귀가 말하는 보는 것이고 하나님같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즉, 내가 육체의 눈으로 접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대로 하나님이 느끼시는 판단을 들려주시면, 나는 귀로 보겠다고 한 것인데 이것이 출 흑암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못 봤지만 사기꾼 조 희팔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나온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외모를 예쁘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을 보십니다.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보는 박 근혜 대통령과 하나님이 보시는 박 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장 동건, 김 태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재벌 총수들, 하나님이 보시는 이순신과 세종대왕은 도대체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으로 판단하며 살아갑니다만, 하나님이 이 지구 위에 있는 것들을 보실 때의 시각 안에서의 세상과, 우리가 판단하면서 보고 있는 우리의 시각 안에서의 세상은 똑같이 지구 위에 있는 세상이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생각하면 70억 명이 모두 자기 나름대로의 세상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의 심정으로 보는 세상과,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는 통보를 공식적으로 받은 예비국회의원이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구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시각 안에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흑암의 재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세상에 대해서 흑암으로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모두 거짓말이고 사기이고 악입니다. 오직 진리와 오직 참된 것은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세상만이 진짜 세상입니다. 내 시선으로 내 판단을 가지고 내가 눈으로 직접 보며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마귀의 말의 속습니다. 마귀가 왜 듣고만 사냐고 묻습니다. 네가 직접 보며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흑암 재앙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완전히 거짓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는 세상이 아닌 다음에는 다 거짓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이 각자가 바라보는 세상 안에서 살면서 모두가 다 흑암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다 거짓이 됩니다. 백 가지 행동과 만 가지 생각이 다 거짓말이고 다 잘못인 것이고 다 죄악인 것은 죄는 빗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보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다 죄인 것은 하나님이 자식을 보고 계시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지구가 초속 30km로 태양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속으로 환산하면 시속 108,000km라고 했습니다. 비행기가 시속 1,000km이니 어마어마하죠. 그 태양은 태양계 전체를 끌고 은하의 중심을 시속 250km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태양계와 은하계를 이 우주 안에 무수히 말씀으로 펼쳐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돈이 많고 적음을 바라보실 때에는 어떻게 보실까요? 사람들이 지식이 있고 없고를 어떻게 보시겠으며, 김 태희 씨를 예쁘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내가 지금 암이 걸려서 한 달 뒤에 죽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 하나님의 시선 속에 머무는 세상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귀로 보시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제쳐놓으시고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 땅에 사는 인간이셨지만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는 그 시선 안에 있는 세상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늘을 알고 세상을 아는 주님으로서는 1초 1각도 이 지구에 머무실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세상을 어렴풋이나마 보고 있는 사도 바울로서는 아그립바 왕과 베스도 총독이 불쌍하기가 그지없었던 것인데, 왕과 총독을 바라보는 모든 대중들은 그것이 부럽습니다. 이것이 흑암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돈이 있다면 그것으로 든든합니까? 그것 자체가 오류이고 난센스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세상에서는 선민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 당신이 택하신 선택받은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걱정거리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 따위 생각들, 이 땅에서 비전과 꿈을 향해 달려가라는 이 따위 생각들이 어떻게 성립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긍정적 차원에서 눈뜬장님이 되고, '여인의 향기' 속의 알파치노가 되어서 눈앞의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시선을 맞추지 않습니다. 눈동자가 먼 산을 바라보는 것처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은 하나님께 고정할 때에 내 눈앞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선과 기준과 판단으로 된 내용물들을 나에게 들려주실 때에,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는 말처럼 마음의 귀를 열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면 귀를 통해서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좋게 보고,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면 내 눈 앞에 있는 것들을 귀를 통해 보며 안 된다고 알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흑암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일천 번제 뒤에 드린 그 기도 속에서의 출 흑암처럼 우리도 날마다 출 흑암을 할 수 있습니까?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루에 일천 번씩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루에 일천 번 내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마귀가 말하는 대로 내가 눈을 뜨고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지 말고, 일천 개의 대상들에 대해서 일천 번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죽으면 드디어 우리 마음의 시선이 고정되고 마음의 귀가 하나님께로 열리면서, 육체의 시선이 무엇을 대하든지 내가 마음의 작용으로 반응하며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말씀으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느냐?”라고 묻습니다.
일천 번제를 드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일천 번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고, 매 순간 내 눈앞에 무엇이 나타날 때마다 죽는 것입니다. 스쳐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행색이 특이하면 쳐다보면서 그 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죽어요. 죽는 것이 반복되다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내려다보시면서 그 올바른 판단(빛)을 귀에 들려주시면 귀로 보면서 세상을 사시는 것입니다.
백문불여일견이 바로 흑암 재앙이고, 백견불여일문입니다.
눈이 떠서 내가 직접 보는 것이 흑암 재앙의 시작인 것이고 문턱인 것입니다.
귀로 보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매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백문불여일견의 흑암재앙으로부터 탈출하여 백견불여일문의 축복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시선 속에 머무는 세상에 들어가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